

폭염에 방치된 취약층… 전남광주 3500가구 ‘주거 사각’

여관 전전하고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전국 55만…“온열질환 등 위험 노출 높아”

연일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35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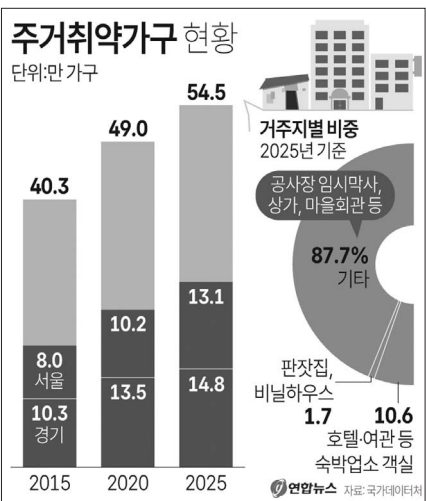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열악한 주거일수록 극한 기후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거처의 종류 및 가구원수별

가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거처 등 주택 이외의 공간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54만 5000가구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2324만 6000가구의 2.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 거주하는 가구가 5만8000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가 9410가구였으며, 주택 이외의 거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가구는 47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 호텔·여관 등 숙박



업소 객실에 거주하는 가구는 1135가구로 집계됐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도 43가구에 달했다. 전남에서는 숙박업소 객실 거주 가구가 2146가구, 판잣

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가 248가구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만 숙박업소 객실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3281가구에 달하며, 판잣집·비닐하우스까지 포함하면 3572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일반적인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구와 달리 주거 환경 자체가 폭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은 외부 기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데다 단열과 환기, 냉방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낮의 열기가 내부에 그대로 축적될 수 있다.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만큼 사람이 장기간 생활하기 위한 주거시설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장시간 가동하기 어려운 경우 폭염 속 주거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숙박업소 객실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 거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간 생활할 경우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주거 이동이 쉽지 않은 가구라면 숙박업소를 사실상 장기 거처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주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전남의 숙박업소 객실 거주 가구(2146가구)는 광주(1135가구)의 약 1.9배에 달했다.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가구도 전남이 248가구로 광주 43가구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하거나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 지역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폭염 때는 주거환경의 차이가 곧 건강 위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비닐하우스나 임시 거처 등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냉방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로 옮길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양상의, 전국 4개 항만 통합 철회 촉구 “항만 물류체계 경쟁력 퇴보 우려”

광양상공회의소가 전국 4개 항만공사(PA) 통합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4개 항만공사 통합은 ‘5국 3특’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이며 그동안 정부를 신뢰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끌어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항만은 저마다 고유한 임지와 배후산업 구조에 맞춰 명확한 역할을 분담하며 발전해 왔다”며 “지역별 물류특성과 산업 연계성을 무시한 강제통합은 각 항만의 특화 기능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항만 물류체계의 경쟁력을 퇴보시킬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 기간산업을 견인해온 ‘국내 1위의 수출입 관문 항만’이고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물류비를 절감

해 기업 경쟁력을 확대해주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낸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이다”며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 육성과 항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독자 경영체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상의는 “광양만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할 여수광양항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이를 통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뜨겁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여수광양항이 국가 핵심 항만으로 독보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영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도 전국 4개 항만 통합 논의를 중단해달라는 담화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생성형 AI 에이전트 기반 바이브코딩 및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 과정 교육 현장.

AI 기반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업무 자동화 1차 교육 완료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도내 가상융합 분야 제작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남 가상융합혁신 전문인력 양성교육’ 1차 과정을 마무리하고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 생성형 AI와 메타버스·XR·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 기술을 접목해 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AI 에이전트 기반 바이브코딩 및 업무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총 24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AI 기반 바이브코딩 입문 및 프롬프트 설계 △자언어 지시를 활용한 서비스 프로토타입 구현 △반복 업무 자동화 기능 개발 △대 1 맞춤형 기술 멘토링 및 서비스 고도화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글 AI 스튜디오 등 최신 AI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생들이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현하도록 했다.

모집 단계부터 정원을 넘어서는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으며, 교육과정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교육생들은 바이브코딩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결과물을 직접 완성하면서 생성형 AI의 현업 활용 가능성을 체감했다.

진흥원은 1차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2·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2·3차 교육은 순천 전남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진행되며, ‘생성형 AI 기반 웹툰·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실무’를 주제로 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



휴가끝·극한폭염에 치솟는 전력수요…역대 최대치 임박

지속되는 폭염에 냉방 가동량이 급증하면서 최대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다. 당초 전력당국은 올여름 전력 수요가 8월 3주 차에 94.1~98.8기가와트(GW)까지 오르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달 첫 주에 이미 해당 구간에 들어섰다.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건물 전광판에 이날 전력 수요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도 청년고용 한파 여전

고용노동부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청년가입자 5.7만명 줄어…“경력직 선호·AI 도입 영향”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전년 대비 27만7000명 늘어나며 7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유지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도입 등 영향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전년보다 4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8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7만7000

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전년 대비 증가폭은 지난해 10만명 중반대 수준을 기록했으나 올해 1월 전년 대비 26만3000명 증가로 개선된 이후 7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8만5000명) △40대(4000명) △50대(3만7000명) △60세 이상(20만9000명) 등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늘었다.

29세 이하(5만7000명)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조원식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 배경에 대해 “29세 이하의 인구 감소 영향이 60%, 고용 감소 영향이 4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청년 고용 감소는 불경기, 일자리 미스매치에 더해 최근 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 인공지능(AI) 및 로봇 도입, 신참이나 기간제 해고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전년 대비 28만5000명 늘어나며 전체 고용을 이끌었다.

반면 제조업 가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감소하며 14개월 연속 줄었으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양 전통주 ‘섬진강의봄’,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우리술 품평회 대상·독일·미국 진출 추진도

광양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섬진강의봄’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과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판로 확대에 나섰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섬진강의봄은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제품을 입점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출시한 프리미엄 메실 스파클링 와인 ‘섬진강의봄’도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받으면서 독일과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섬진강의봄은 지난 2023년 설립된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전통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섬진강바람 오코40’은 ‘2025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품질과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품평회 수상을 계기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데 이어 신제품 개발과 국내의 판로 개척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올해 섬진강의봄을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제품 연구개발과 디자



인 개선, 브랜드 고도화,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전통주 박람회 참가를 통해 소비자와 국내

외 유통 관계자에게 제품을 알릴 기회도 제공했다.

특별시는 이번 사례가 업체의 제품 개발 노력과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이 결합해 품평회 수상과 면세점 입점, 해외시장 진출 추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코스피, 3거래일만 ‘찜뭇’ 상승

6300선 마감…코스닥 7% 급등

코스피가 외국인의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매도세 속에 3거래일 만 상승 마감하며 6300선 턱밑까지 올라섰다.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 가까이 급등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0.89p(0.65%) 오른 6299.6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56p(0.76%) 오른 6306.33으로 출발해 장중 6394.06까지 올랐으나 한때 6232.45까지 밀리는 등 등락을 거듭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8928억원과 5762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490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이날 시장에서 시가총액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0.43%와 0.14% 내린 23만원과 14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우(1.12%)와 SK스퀘어(1.06%), LG에너지솔루션(2.08%), 현대차(3.16%), 삼성바이오로직스(0.84%)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1%)는 상승했다. 삼성전기(0.31%)와 KB금융(2.33%)은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5.66p(6.97%) 오른 854.4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85p(1.11%) 높은 807.66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855.38까지 치솟았다. 장 초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오전 9시 50분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번 사이드카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발동된 31번째로, 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는 18번째다. 이후에도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

수급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660억원과 1031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6729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일제히 상승했다. 알테오젠(14.10%)과 에코프로(8.72%), 에코프로비엠(7.29%), 레인보우로보틱스(5.16%), 주성엔지니어링(13.30%), HLB(9.11%), 리노공업(7.61%), 에이비엘바이오(8.08%), 원익IPS(11.44%)와 리가켄바이오(5.92%)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알테오젠은 14.10% 급등한 34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18.4원을 기록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